

## HEADLINE NEWS

### 멸종위기에 처한 연어 보호 캠페인 전개 (시애틀)

시애틀시는 최근 치누크 연어가 미국 멸종 위기생물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어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市の 15개 예술애호가 관련단체가 공동 기획한 '도시의 연어(Salmon in the City)' 행사를 주최했다. 이 행사는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 행사로 개막되었으며, 올해 7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市는 이 행사의 개막에 맞추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열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예술가단체는 멸종위기의 연어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조각작품 전시, 시(詩)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사를 열고 있다. 현재 '도시의 연어' 행사는 북서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의 연어를 보호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1551&Dept=1](http://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1551&Dept=1))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성인오락시설물 설치 규제 강화 (뉴욕)
- ② 도심부 거주자 지속적으로 증가 (동경)
- ③ 동네 가꾸기를 지역 축제 형식으로 전개 (L.A.)

### 도시환경

- ④ 수은함유 측정계기 사용 및 판매 금지 (뉴욕)
- ⑤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운영 (베를린)

### 도시교통

- ⑥ 안전띠 미착용 단속 대폭 강화 (홍콩)
- ⑦ 지하철역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뉴욕)
- ⑧ 노상주차해결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사회실험' 실시 (동경)

### 행재정

- ⑨ 어린이용 행정홍보물 창간 (일본 : 토야마縣)
- ⑩ 직원 성과급제도 도입 (뉴욕)
- ⑪ 행정정보공개 심의기구 설치 (교토)

### 사회복지

- ⑫ 育兒정보책자 발간 (동경都 분쿄區)
- ⑬ 의료시설 갖춘 「어린이환자용 탁아소」 개설 (일본 : 료난町)
- ⑭ 장애인·관광객·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지도 제작 (일본 : 아키다市)
- ⑮ 학생 약물중독예방 웹사이트 개설 (베를린)

### ① 성인오락시설물 설치 규제 강화 (뉴욕)

뉴욕시는 최근 성인오락시설물(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 성인오락시설이 학교, 교회, 주택가, 그리고 동일업종의 시설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그 동안 용도지역규제(Zoning Regulations)를 통해 성인오락시설 설치금지구역을 명시해 놓았으나, 업주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 설치금지구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www.ci.nyc.ny.us/html/om/html/2001a/pr095-01.html](http://www.ci.nyc.ny.us/html/om/html/2001a/pr095-01.html))

### ② 도심부 거주자 지속적으로 증가 (동경)

東京都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00년도의 주택백서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맞물려 도심으로의 인구회귀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또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주택건설 및 가격동향을 조사해 정리해놓은 이 백서에 따르면, 都內 분양맨션의 신규공급물량은 40,355호이며, 이 중 동경 23區는 31,321호로서, 전년도보다 42.1% 증가했다. 특히, 도심의 千代田區, 中央區, 港區는 총 3,365호로서, 97년부터 3년 연속 區 전체의 신규공급물량의 10%를 넘어 도심으로의 인구 회귀를 촉진시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3. 7)

### ③ 동네 가꾸기를 지역 축제 형식으로 전개 (L.A.)

로스앤젤레스시는 '깨끗한 동네를 축하합니다(Celebrating a Clean Community)'라는 이름으로 동네 가꾸기 행사를 지역축제 형식으로 펼치고 있다. 주민과 학생, 지역의 각종 단체와 市の 건설국·하수국 등 지역환경 관련부서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행사에는 나무심기, 도로·보도 개수(改修), 낙서 제거, 쓰레기 처리 등 동네환경정비에 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을 위한 축제가 곁들여지고 있다.

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네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市에서 하는 일과 市の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홍보하는 기회로 이 행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市の 유관부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의 질문에 답해주고 있으며, 깨끗한 동네환경에 대한 전시회도 열고 있다.

([www.lacity.org/bpw](http://www.lacity.org/bpw))

### ④ 수은함유 측정기기 사용 및 판매 금지 (뉴욕)

뉴욕시는 최근 가스관, 배수장치 및 환기구 시스템 등을 측정하는 데 쓰는 수은함유 計器(Mercury Gauges)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은함유 計器 및 이 計器의 재충전용 수은의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수은은 심각한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이 있음에도 측정의 정확성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수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측정기기가 많이 개발됨에 따라 市는 수은계기의 판매금지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www.ci.nyc.ny.us/html/om/html/2001a/pr100-01.html](http://www.ci.nyc.ny.us/html/om/html/2001a/pr100-01.html))

### 5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운영 (베를린)

베를린 연방환경부는 가스업체와 함께 추진하는 ‘베를린을 위한 환경택시’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4월부터 천연가스 충전소 4곳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연방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베를린에 총 10개의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천연가스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을 구상 중이다. 천연가스는 비용과 환경오염 측면에서 현재의 자동차 연료의 대체연료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한 배기가스보다 80~90% 가량 적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news\\_lang.s...01-04-04](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news_lang.s...01-04-04))

### 6 안전띠 미착용 단속 대폭 강화 (홍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띠 착용 캠페인이 홍콩 및 호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에서는 택시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띠 미착용 승객은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승객이 앉은 위치에 따라 안전띠를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스티커 약 4만장을 배포, 차량 내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지난 3월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범칙금이 기존의 115호주달러(한화 7만5천원)에서 220호주달러(한화 15만원)로 대폭 인상되었다.

([www.info.gov.hk/td/eng/whatsnew/seatbelt.html](http://www.info.gov.hk/td/eng/whatsnew/seatbelt.html))

### 7 지하철역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뉴욕)

뉴욕지하철시민모임(Straphangers)은 기존의 지하철 노선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 지난해 4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하철 역사(驛舍)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청결도, 안전도, 혼잡도, 접근성 및 이동성, 그리고 안내체계 등 5가지로서,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해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하철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총 39,500장의 평가용 엽서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3,879장이 회수되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평점 2.5점을 기록한 플랫폼 혼잡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도(2.9점), 청결도(3.0점), 안내체계(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시민모임은 '97년 이래 이용승객이 17%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향상은 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기시간 단축, 혼잡도 완화를 위한 공간확보 등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을 통한 재정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www.straphangers.org/reports.html](http://www.straphangers.org/reports.html))

### 8 노상주차해결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사회실험' 실시 (동경)

東京都는 경찰청, 건설성과 함께 노상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부야區에서 '주차수요관리 사회실험'을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무질서한 노상주차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都는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노상불법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아니라, 주차장 안내·유도와 소화물차량의 작업대책 등 복합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실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실험에는 지역의회 및 상가번영회, 물류업체, 백화점, 주차장 운영업체, 관계행정기관 등이 '사회실험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참여했다. 협의회는 각 시책마다 분과위원회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참여 및 합의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실험을 위해 주차안내표지판과 주차장 정보시스템이 제공되었고, 화물차량의 작업편의를 위한 노상 작업공간이 70대분 설치되기도 했다.

(交通工學, 2000년 6호(통권 35호), 일본 교통공학연구회 권)

### 9] 어린이용 행정홍보물 창간 (일본 : 토야마縣)

일본의 토야마(富山)현은 어린이들이 縣 행정 동향이나 縣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어린이 縣廣報」를 창간했다. 타블로이드판·칼라로 발간된 창간호는 초등학교 등에 배부되었으며, 앞으로 봄·가을 연 2회 발간될 예정이다.

홍보물 표지에는 知事의 인사말이 게재되었으며, 본문에는 ‘어린이 縣의회’, ‘세계 어린이 연극제’ 등을 비롯, 縣 내의 명소 및 이색풍물 등을 소개하는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縣 홍보과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행정용어를 배제했으며, 발간 작업시 교육기관 등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 4. 5)

### 8] 직원 성과급제도 도입 (뉴욕)

뉴욕市는 최근 공무원들의 생산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市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탄력적인 성과급 제도(Merit-Pay Plan)를 도입키로 했다. 市는 최근 市 공무원노조의 최대조직인 12만5천명의 회원을 가진 ‘District Council 37’과 향후 27개월간 8% 이상의 봉급인상을 합의하면서, 성과급 제도도 함께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뛰어난 성과를 보인 고용인(僱傭人)에게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은 고용주(雇用主)의 권리라는 사실을 공무원노조가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현재 市는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The New York Times, 4. 12)

### 8] 행정정보공개 심의기구 설치 (교토)

일본 교토(京都)시는 최근 공문서 공개에 관계된 불복신청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사회’를 설치했다. 이 심의기구는 대학교수, 변호사, 기업가 등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과정은 비공개지만 결과는 공개할 예정이다.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시민이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토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했다. (日本經濟新聞, 4. 3)

### ⑧ 育児정보책자 발간 (동경都 분쿄區)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육아관련정보를 한데 모은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東京都 분쿄(文京)구는 최근 區内の 육아관련시설 등 육아관련정보를 한데 모은 「육아 맵」을 발간해 배포했다. 실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 및 관련실무자 등이 함께 참여해 만든 이 책자에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고교생이 될 때까지 성장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신중 유의사항, 아기의 건강진단, 소아과병원, 육아시설, 육아 및 교육 관련 상담창구, 장애아 도우미, 무료 예방접종 등 육아관련 행정서비스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를 가진 세대에 1권씩 배포되었다.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모리야마(守山)구에 있는 한 시민단체는 區 소재 놀이터, 육아관련모임, 관련행정기관 등의 정보를 정리한 「모리야마 육아 맵」을 발간했다. 주로 어린이 놀이터, 구급 가이드, 놀이방, 부모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서점에서 판매중이다. 兵庫(효고)현 尼崎(아마가사키)시에서도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육아 지원 북」을 발간, 보건센터 등에 무료 배포했다. 市는 육아 경험이 있는 어머니 7명의 협조를 얻어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육아지원시설, 육아 자료 구입처, 각종 육아관련 수당·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4. 6 / 4. 20) (東京新聞, 4. 19)

### ⑧ 의료시설 갖춘 「어린이환자용 탁아소」 개설 (일본 : 료난町)

일본 카가와(香川)현 료난(綾南)정 보건센터는 부모가 육아와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어린이환자 탁아소」를 개설했다. 보건센터는 인접 지역의 국민건강보험병원에 업무를 위탁, 이 탁아소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보건센터는 보호자가 직장, 출산,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몸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가 힘든 경우에 이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대상자는 지역의 일일 탁아소에 다니는 유아를 원칙으로 했지만, 일일 탁아소에 다니지 않는 유아나 저학년의 초등학교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통원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의 경상환자만 이용 가능하다. 이 탁아소에 배치된 소아과 의사가 어린이 환자를 진찰하고, 간호사나 보육사가 체온 측정, 투약, 기저귀 갈아주기 등을 한다. 1일 이용료는 2,000엔이며, 식비 및 간식대는 별도이다. (아사히신문, 4. 4)

### 장애인·관광객·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지도 제작 (일본 : 아키타市)

일본 아키타(秋田)시 소재 시민단체인 「아키타 Barrier Free 네트워크」는 아키타市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이나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거리에 나설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관광객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재미있고 편리한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3년 전부터 지도제작을 추진해온 이 단체는 그 동안 100명 이상의 학생 아르바이트를 동원, 거리를 직접 걸어다니며 건물의 장애 정도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까지 조사해 왔다.

등산용 지도처럼 접으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로 제작되고 있는 이 지도의 앞면에는 JR아키타驛에서 변화가 주변까지의 지도가 게재되며, 공공기관이나 숙박시설, 편의점, 소리나는 신호등 위치 등이 표시된다. 뒷면에는 명소 및 음식점 등이 소개되며, 휠체어·맹인 안내견의 유무와 수화통역 가능 여부, 그리고 영업시간이나 연락처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아사히신문, 4. 5)

### 학생 약물중독예방 웹사이트 개설 (베를린)

베를린의 교육청·소년체육부는 현재 학생들의 약물중독 예방을 위해 약물중독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개설, 약물중독과 관련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질문에 대해 관련전문가의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학생 약물중독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답변은 관련전문가 또는 유관연구기관에서 작성하게 되며, 모든 질문과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된다. 이 홈페이지는 크게 학생·교사·학부모를 위한 질문과 답변의 3가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www.sensjs.berlin.de/schule/Suchtvorsorge/briefka.../index.htm](http://www.sensjs.berlin.de/schule/Suchtvorsorge/briefka.../index.htm))